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 13,44)



제1독서

1열왕 3,5-6 7.7-12

〈너는 분별력을 청하였다.〉

화답송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 97 7 참조)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을 깨우치나이다. ◎

제2독서

로마 8,28-30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3,44-52 또는 13,44-46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성가안내

• 입당성가: [337] 미사 시작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 성체성가: [188] 천사의 양식

• 파견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499] 만찬의 신비

제1독서

1 열왕
3,5-6,7,7-12

너는 분별력을 청하였다.

그 무렵 ⁵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⁶솔로몬이 대답하였다. ⁷“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⁸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⁹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¹⁰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¹¹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¹²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2독서

로마서
8,28-30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²⁸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²⁹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³⁰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복음

마태오
13,44-52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⁴⁴“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⁴⁵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⁴⁶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⁴⁷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⁴⁸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⁴⁹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⁵⁰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⁵¹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⁵²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묵상

오늘 예수님 말씀은 숨겨진 보물과 진주로 비유된 하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버려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려면 다른 무엇을 포기해야만 하지요. 세상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나라를 추구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버리는 결단과 끝없는 노력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필요 없는 것인지를 식별하는 지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제1독서에 나옵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말을 잘하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야고 1,19). 그러므로 제대로 말하려면 제대로 들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하지요.

고요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지요. 그리고 나에게 하느님 나라가 왜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늘 나라를 위해 불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될 것이며, 참으로 투자할 곳에 투자하는 신앙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출리아 크노프 글, 롤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 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Q 병자성사 때는 왜 기름을 바를까?

아픈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괴로운 때가 많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의문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병은 하느님이 내리신 ‘벌’ 이라고 생각해 하느님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 버리셨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걱정을 해서 안 된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느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아무리 무서운 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면 그런 믿음도 약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신자가 큰 병에 걸려 누워 있다면 병자성사를 받게 해야 한다. 병자성사는 몇몇 기도문과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병자에게 성유를 바르는 예식이다. 특히 하느님이 병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 가까이 계시는지 확인해 주며, 주위 사람들(가족이든 이웃이든)이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병자성사에서는 사제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한다. 이 때 사람들은 병이 빨리 낫기를, 또한 그가 두려움과 불안을 털어 버리고 마음에 안정을 찾기를 함께 청한다. 이마와 두 손에 바르는 성유는 그렇게 하느님이 병자를 지켜 주신다는 것을 알려 주는 표시다.

병자가 스스로 병자성사를 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너무 아파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믿음이 약해서 또는 잘 몰라서 병자성사를 청하지 못할 때는 가족이나 주위 신자들이 그가 병자성사를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아플 때 더욱더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병자는 병자성사로 더욱 든든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설령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지라도, 병자성사는 특별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병자성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병자는 죽음 앞에서도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다.

Q 왜 혼인 성사를 할까?

혼인성사는 무엇보다도 혼인성사의 의미가 중요하다. 혼인성사를 받은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 평생 상대방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혼인을 ‘성사’ 가운데 하나로 여겨 온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혼인성사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부부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예식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결혼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약속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가 참 많다. 잠깐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면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다시 말해 평생 동안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느님을 두 사람의 결혼 증인으로 기억한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이 바뀌는 것을 생각하면, 영원히 한결같으신 하느님이 두 사람의 혼인을 지켜 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신앙인들이 더욱 탄탄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도록 혼인성사를 마련했다. 따라서 혼인성사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성당에서 먼저 혼인 예식(혼인성사)을 치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혼치 않다. 결혼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가톨릭 신자일 경우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법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 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교회는 혼인 당사자들의 서약을 받고 관면을 통해 교회의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 또는 선택과 저주의 순간 최후의 심판

솔로몬 성전 치수와 같은 바티칸 시국의 시스티나 경당은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비롯한 교황의 중요 업무 공간으로 교회를 건립한 212대 교황 식스토 4세(Sixtus PP. IV, 1471- 1484)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경당의 또 다른 유명세는 내부벽을 장식하는 르네상스 대가들의 프레스코화 향연으로, 백미는 단연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천정화 ‘천지창조’와 연결되는 정면 벽화 ‘최후의 심판, Last Judgement 1536-1541’이다. 관람객은 경건함 유지와 사진촬영 금지라는 엄격한 경비원의 안내로 북적이는 수백 명의 인파에 합류하는 순간 공간 가득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작품에 당황한다. 원활한 관람을 위한 가이드의 시간제한과 산만한 주변에도 불구하고 제단 정면의 그리스도는 모든 방문객과 그림 속 인물 391명을 동시에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의 카리스마로 평화롭게 제압한다.

미켈란젤로는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천국·연옥·지옥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동원해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시각언어로 표현했다. 화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승천하는 자들, 죽은 자들의 부활, 나팔 부는 천사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리들로 구분해 5개로 구성된다. 젊고 당당한 남성성이 강조된 중심 인물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를 장악해 지배하는 강력한 초월적 존재로 화면은 마지막 판결 바로 직전의 순간을 포착한다. 그리스도는 침착하고 압도적인 제스처로 모두를 집중시켜 혼돈과 불안을 달래고 회유하며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린다. 그리스도를 중심축으로 시작하는 느린 회전 운동에 따라 수백 명의 인물이 그려내는 거대한 원은 능숙한 대가의 정확한 수치로 계산된 영원한 궤도이다. 이 순환에서 상단 좌우 루네트의 그리스도의 고문 도구를 들고 탈출을 시도하는 천사들은 제외된다.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화 1536-1541 13.7 m×12.2 m



미노스를 향한다. 관람객은 항로 이탈이나 저항조차 없는 배가 인도하는 잿빛 죽음의 세계와 지옥의 불구덩이와는 승천하는 영혼을 기다리는 광휘롭고 신비한 천상을 목격한다.

미켈란젤로는 천정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를 9장면의 ‘천지 창조’를 제작한 24년 후 66세에 요한묵시록의 ‘최후의 심판’으로 인간의 마지막 미래를 완성하는 제단화를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중재자로 개입 할 수 없는 성모 마리아는 완전한 복종의 몸짓으로 좌우의 성인들과 천국의 내정자들과 함께 간절하고 신중하게 심판의 판결을 기다린다. 하단 천사들은 죽은 자들을 깨우는 나팔을 사방으로 불며 최후의 날이자 마지막을 알리는 심판의 서곡을 연주한다. 오른편 천사가 든 작고 얇은 선택 받은 영혼들의 명부와는 다르게 왼편 천사의 크고 두꺼운 저주받은 영혼의 명부는 실천하기 힘든 선과 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여준다. 그 아래로 인간의 숙명인 죽음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아케론(Acheron)강이 흐른다. 명부에 따라 자신의 모습과 육신을 되찾아 천국으로 부활하는 이들 반대편의 천사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저지하는 마귀들과 싸우는데, 이미 카론의 배는 노를 저어 온몸이 뱀에 감긴 지옥의 마왕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모든 물질적 영혼적 탐욕을 제거한 태어날 때와 같은 알몸으로 묘사해 당대인들의 경악과 찬탄의 표적이 되었다. 20년 이상 지속된 논란은 1564년 트리엔트 공의회 ‘음란’ 판결로 하의가 덧입혀졌다. 예술적 자존심 강한 천재는 그림 속 바틀로메오가 든 흉측하게 벗겨진 살가죽에 자화상으로 새김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오만도 자만도 없는 죄 많은 인간임을 고백한다. 관람객은 모두가 갈망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공포와 형벌을 상상한 걸작에서 선과 악에 따른 미래의 마지막 심판을 성찰한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Jr. High WORKCAMP

From July 10 to July 12, more than 90 students from grades 6th-8th from five parishes in the area gathered at St. Leo the Great church in Fairfax for Junior High Work Camp 2017.

Hosted by St. Leo the Great church, St. Paul Chung joined forces alongside St. Mary of Sorrows in Fairfax, St. Veronica in Chantilly and St. Mark in Vienna. With five adult volunteers, 14 middle school students and four high school helpers from our parish participated in this camp.

This year's theme was "Come and See." Through this three days of service, faith, and fellowship, participants and volunteers have encountered Christ in service.

Special thanks go to Fr. Seong for his strong support, Mr. Kwon from the parish facility department, Dorothy Jeong, Sang Mee Han, Christina Choi, Shawn Boyle and four excellent high school helpers, Allen Jeong, Dylan Jang, James Sunwoo and Ryan Park.



What are the campers say

Zachary Kim |
This week was a blast and I can't wait to come back next year.

Julia Kwak |
I enjoyed passing out flyers and creating bags to help those in need, in addition to cleaning our church's statues and gardens.

Matthew Hargrave |
I felt really good to come back and help people while having fun.

Ellina Yi |
I was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God because of all the prayers and the adoration we did.

Kate Lee |
I was blessed with many chances of meeting new friends from other parishes.

Aaron Park |
I very much liked the Holy Hour when we knelt in the pews to pray with God.

John Kim |
The high school helpers were also very helpful, and their speeches were very inspiring.

Eric Whang |
I really liked the ways we got to go to daily Mass and the way we praised and prayed to God.

Claire Lee |
Junior Work Camp is an experience I wouldn't regret.

Monica Son |
It was my first year, and I had a great time. I would like to go again.

Junho Lee |
The experience was nice, and I look forward to participating in more youth group activities at church.

Charlene Huynh |
It's a way to connect with other parish kids and a way to help others through activities.

Malcolm Boyle |
I like that we as middle schoolers can help the community. And daily Mass made me feel more spiritual inside than usual.

Adam Jeong |
I also met new friends and ate good food.



CCD

~2017~ SUMMER CAMP

- **WHEN** : Aug 11(Fri) – Aug 13(Sun)
- **WHO** : Rising 4th to 8th grade
- **WHERE** :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COST** : 1 Camper -\$120
2 or more from the same family - \$100 / person
- **Registration** : Sundays, July 9 - August 6
(after 10am & 11:40am Mass at the cafeteria)
- **For more information** :
please contact **Chris Suh** (서동민)
chris.dong.suh@gmail.com

ANNOUNCEMENT

1. 2017-2018 Sunday School Registration

- **When** : Sundays, Aug. 6-Aug. 27
(after 10am & 11:40am Mass)
- **Where** : Hasang Building Lobby
- **Fee** : 1 child/family \$80
2 children/family \$150
3 children & more/family \$200
(checks or cash)

이상 한국학교

여름 학기 운동회

이상 한국학교에서는 지난 금요일(21일) 운동회가 열렸다.

오전에는 야외 주차장과 체육관에서 총 8쪽지를 돌면서 청, 백, 홍팀 대항으로 게임을 하였다. 게임 종목으로는 ‘컵 높이 쌓기, 수박 많이 먹기, 스피지 릴레이, 물 풍선 멀리 던져 받기, 단체 줄넘기, 콩주머니 던지기, 응원 구호 외우고 간식 사 먹기’ 등이 있었다.

오후에는 전교생이 체육관에 모여 모두 4개의 게임을 하였다. 학생들의 연령에 맞게 구성된 전체 게임에서는 ‘줄다리기, 큰 공 배구, 딱지 뒤집기, 장애물 릴레이’ 등 더욱 새롭고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청, 백, 홍팀으로 나뉘어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체육관이 떠나갈 정도로 응원전을 펼쳤다.

육옥영 한국학교 교감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운동회가 되기까지 수고해 준 교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맛있는 간식과 점심을 제공해주신 학부모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는 말을 전하였다.

물 풍선 던지기



줄다리기



청, 백, 홍팀 단체사진



컵 높이 쌓기

큰 공 배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한 바오로회의
사랑의 목주 기도 스테이션

바오로회에서 모든 자매님·형제님들과 함께 목주 기도를 봉헌하는 사랑의 기도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용 방법

- 1 사랑의 기도 스테이션에는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 “목표”, “현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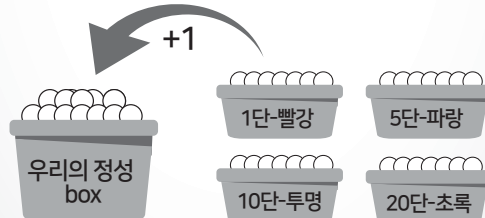
목표

200 단

현재

0 단

- 2 기도하신 목주 기도 단수만큼 “우리의 정성” 박스에 구슬을 넣습니다.



- 3 현재 단수가 목표 단수만큼 달성되면 기도 제목이 새롭게 바뀝니다.

복 더위를 이기는 가두선교



더위를 잊었다. 이 날 해리슨버그에 사는 젊은 교우 한 가정이 마침 성당을 찾고 있어 주보를 보여주고 안내하였으며 본당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달이 있어 여름이 유난히 긴 더위에도 본당 소속 레지오 단원들의 가두 선교는 계속되고 있다. 7월 23일(일) 오후 1시 센터빌 H 마트 앞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단장 정우진 미카엘) 소속 착한 의견의 어머니 브레시디움 (단장 강명희 에밀리아) 여성 단원 2명과 겸손의 어머니 (단장 노응홍 아브라함) 남성 단원 2명이 쇼핑객들을 상대로 90여 장의 선교 유인물을 돌리며 가두 선교로

1 2017 - 2018년도 사목보고회

- 일시: 8월 6일(일) 오후 1시, 성당 (점심식사 오후 12시)
- 참석대상: 사도임원, 재정위원, 사도회 임원, 구역봉사자 (소공동체), 단체장(신심 및 활동 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YO, CCD) 교감, 하상문화원 원장, 하상방송 코디네이터, 하상성인학교 교장/교감, 하상한국학교 교장/교감
- 문의: 지경수 총무 (571)331-6047

2 프란시스코 재속회 서약식

- 일시: 7월 30일(일) 오후 1:30 (성당)

3 병자 영성체

- 일시: 8월 4일(금)
- 신청: 조영인 형제 (703) 264-0050

4 회장단 회의

- 일시: 8월 4일(금) 오후 8시, 회의실

5 구역임원 교육

- 일시: 8월 6일(일) 오전 11:30 (B-1,2)

6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8월 6일(일) 오후 1시 (B-3,4)

7 바오로 총회

- 일시: 8월 6일(일) 5시 미사 후
- 문의: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8 CCD 여름 캠프 신청

- 신청: 미사(8시, 10시, 11:40)후 친교실
- 캠프 일정: 8월 11일(금) - 8월 13일(일)
- 장소: Pine Creek Retreat Center
- 문의: 서동민 (571) 435-6476

9 성모회 임원회

- 일시: 8월 6일(일) 오후 1시 (B-1)

10 2017 - 2018년도 주일학교 등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니 학부모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8월 27일까지 주일 오전 10시, 11시 40분 미사 전-후(하상관 로비)
- 등록비: 한 자녀 \$80 / 두자녀 \$150 / 세자녀 이상 \$200
- 문의: 윤정 보일 (703)371-3589

11 오세완 신부님 초청 성모 신심 특강

-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 교우들을 대상으로 성모신심 특강이 열립니다.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하는 이번 특강은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며,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 생활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강 둘째 날 미사에서는 스카프라와 초 봉헌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교우 누구나 봉헌드릴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사: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오마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임)
- 첫째날: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인가?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 역할
- 둘째날: 7시 30분 미사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 생활
- 날짜: 2017년 8월 16일(수), 8월 17일(목)
- 시간: 오후 7시 30분 - 10시 30분
- 장소: 성정바오로 성당
- 주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2 미 동북부 ME 부부 주말 여행

- 부부간의 성숙한 대화를 통하여 행복한 부부생활을 도와주는 특별한 주말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9월 2일(토) - 9월 4일(일) Labor day weekend
- 장소: Double Tree Hilton Hotel, NJ
- 문의: 김아놀드/ 레지나부부 (703) 477-2446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17 주간: 레위 24-27

* 여름 휴가중 *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8월 3일 (목) 오후 5:00-6:00
8월 4일 (금) 오후 8:00-9:00
8월 6일 (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 뉴스
- CPBC 특집 / 글로벌 나눔 3 : 아시아에 사랑을 심다. 몽골 어린이 교육에 헌신하는 한국 수녀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7월 23일 (연중 제 16 주일)

주일헌금	\$ 7,642.00
교무금	\$ 6,395.00
교무금(신용카드)	\$ 2,540.00
특별헌금	\$ 500.00
2차 헌금	\$ 0.00
합계	\$ 17,07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학,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명균(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원(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영(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송영호(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기다), 오인균(바오로),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영식(토마스), 박광원(아나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화성(세실리아)

- ♥ **군복무자**
- 강로련(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시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시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2017년 페루 선교를 위해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선안, 권현정, 강베로니카, 강세원, 강국구, 구역부, 김과연, 김병국, 김동주, 김두하, 김신자, 김성순, 김소피아, 김영숙, 김영옥, 김정수, 김정임, 김춘매, 김형석, 김홍자, 문인순, 민필성, 민멜라니아, 마리아, 백경숙, 박연, 박양숙, 박옥숙, 박옥희, 변로사, 서릿다, 서운배, 서정숙, 성재복, 송순영, 신세균, 안순상, 양혜련, 영복, 우연숙, 유근성, 윤민숙, 윤율리아, 오승영, 요시노레지나, 이경덕, 이근애, 이벨라나, 이다연, 이마르타, 이숙진, 이순섭, 이수지, 이윤정, 이은경, 이은정, 이정화, 이정렬, 이재원, 이혁찬, 임인옥, 임채인, 정규임, 주례지나, 전영자, 조남식, 조남희, 조순우, 크리스티아, 최애선, 최명란, 하드웨이데레사, 한시자, 한엘리사벳, 한영옥, 허에리카, 황복성, 황영문, 황재인, 나무다리팀, 성물부, 안나희, 센터빌2반, 하상회, CLC 포도원팀, CLC 평화팀, Oliver Broken, Young J Choe, Jung Y You, Woodbridge 공동체, 성령기도회, 라우든2반, 꾸르실로, 구역부

이 외에도 페루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30일(일)	연중 제17주일	프란시스코 재속회 개인면담(오전 9:30, 친교실), 프란시스코 재속회 서약식(오후 1:30, 성당), 재속회 축하식(오후 3:35, 친교실), 성서통독반(오전 11:50, B-1,2)
31일(월)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오전 9:30-오후 3:30, 하상관, 친교실)
8월 1일(화)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기념일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 레지오 마리아에(오후 8시, 친교실), 성령기도회(오후 8시, 도서실),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2일(수)	연중 제17주간	레지오 마리아에(오전 9:30, 친교실),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 성서통독반(오후 7:30, A-1,2)
3일(목)	연중 제17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
4일(금)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 병자 영성체, 회장단 회의(오후 8시)
5일(토)	연중 제17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에(오전 9:30, 친교실), 파티마 켈모임(오후 3시-6시, B-4), 파티마 첫토요심심(오후 6:15-7:15)
6일(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사목보고회(오후 1시, 성당),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바오로 총회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흥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터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ank of Hope SBA 대출/융자 jessie.kim@bankofhope.co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광고 접수중! 주보를 통해 교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호현 (요셉)